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nmaum

일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또다시 한 지구 방식에 앉았습니다. 상하가, 동서남북이 다 한 지구에 보편적으로 섞여서 우리가 한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면서도 생활속에서 참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선이란 게 생활과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밤이나 낮이나 뛰듯이 지구도 밤이나 낮이나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뛰고 있거든요. 인간뿐이 아니라 모두가 다요.

눈을 감고 있어도 참선입니다. 와선이 아니라 그죠. 누우면 와선, 일을 하면 행선, 서서 다니면 입선, 앉으면 좌선, 이것이 모두가 겸해서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생활 속에서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부인 노릇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걸림없이 하시죠? 그와 같이 그대로 생활을 해나가시되 그거를 어떤 놈이 이끌어서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만지게 하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자기의 불성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전의 신지식들께서는 몸을 배로 비유를 했고 그 선장은 불성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마는 내면의 자기를 그렇게 움직여리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게 몸통이 하나를 하나로 돌아가게 하죠. 그걸 아셔야 이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아시게 됩니다.

지구의 문제 대처하는 방법

두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구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모든 현실을 지켜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환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구 폭발 문제라든지 물 부족, 식량 부족, 이상기후, 양 극점의 얼음 녹는 문제, 지진 발생,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산소 부족 등등 많은 증상을 안고 있습니다. 큰스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장래에

거기다 놓으면 모두가 움직여리게 된다 구요. 그러나 움직여리게 것만이 또 문제가 아니라 움직여지게 것도 움직여지게 하는 것도 똑같다. 이것을 해나가려면 잠시라도 할나할나 이렇게 안 움직여지게 할 수 있어야만이 움직여지게 할 수 있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즉 말하자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미래도 한 바퀴 돌아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도 현실로 미래도 현실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일초 전 일초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삼세를 돌 아나게 넘어갈 수 있어야만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그냥 한군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 여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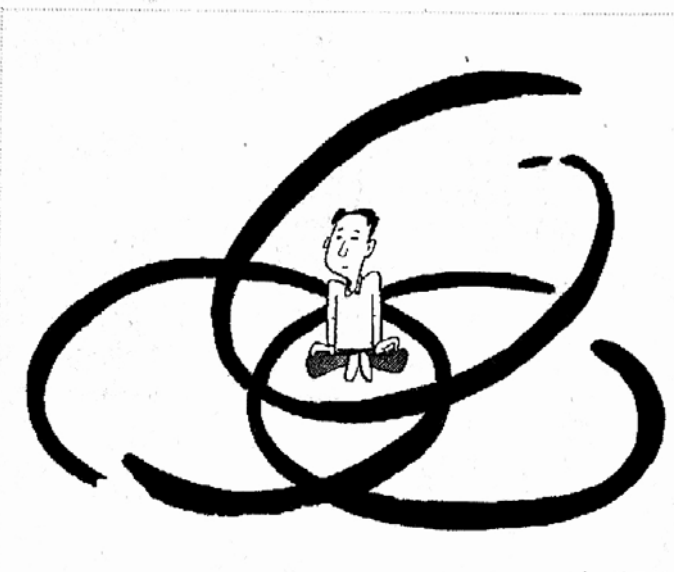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원심력과 구심력의 의미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용(用)에 있어서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해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살아나가는 데 그런 생각들을 안하고 사시지만 우리는 공생으로 삽니다. 공생으로 살죠? 우리 몸통이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 까닭에 공생입니다. 그리고 또 공체입니다. 그 생명체의 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체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여지게 것도 공용입니다. 모두가 분야 분야를 맡아서 움직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분야 분야 맡아서 움직여지게 하는 공용을 공용이라 하고 공체라고도 합니다. 공체라는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데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모습으로서는 이렇게 집어먹는 데도 시간이 가고 그렇지만, 공식일 때는 하나를 집어먹어도 전체를 집어먹어도 집어먹는 사이 없이 집어먹게 되고, 함이 없이 하게 되고, 주는 사이 없이 하게 되는 것도 한 할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

식으로서 우리가 해나가는 데는 그 여러가지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이 한데 모두 어우러져서, 즉 말하자면 원공이고 원식이죠. 그게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통째로 없었니까요.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부.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셨지 보살이라는 이름을 내 놓질 않았단 얘기도. 그런데 그후에 보살이라는 이름이 방편으로 생긴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부처님의 마음을, 즉 말하자면 할 일이 많으니까 이 부서는 지장승도 이름을 지어서 말아라. 이 부서는 관세음으로 말아라. 이 부서는 칠성으로 말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고 자기의 진짜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연등불이다. 즉 자기 자성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등불이라고 한다면 연등불이 자기한테 뜻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에게 석가가 되라 하고 수기를 내리셨다고 그랬죠? 그러한 모두를 주신 것이 바로 자기 자기한테 주신 거라 이겁니다. 깨우친 분들은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말만 들어도 벌써 몇천리 몇천리, 몇천년이 지난 일도 알고 있던 얘기도. 그렇게 되니까

은혜 보답하게 수행하려면

통영 지원의 신도입니다. 먼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매 법회 때마다 큰스님께서서 커다란 코끼리를 내려주시마는 저는 아직 아둔해서 코를 만졌다가 다리를 만졌다가 꼬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큰스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코끼리를 통째로 팔것 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스님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느 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청출어람 하여서 큰스님 그 크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맹세 올립니다.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질문으로 알고, 코를 만지든 귀를 만지든 다리를 만지든 그 모든 몸이 한군데에, 내면 한군데서 뛰고 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잠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

우리 마음이 지장이 되고 관세음도 되는 것이니 마음을 자유롭게 쓰세요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인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갈래 갈래 가치를 떨어져서 이름도 알아야 하고 모든 걸 배워야 하지만 이런 참선입니다. 선에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한데, 이 공부할 때도 한군데로, 내면 한군데로 모아서 나와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모아서 놓지 않아도 한군데로 놓으니까 모아지죠? 그러듯이 일체는 모두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천차만별의 일들을 그것을 어떻게 이름으로 지어서 다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마음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만이 일체가 모두 돌아옵니다. 항상 누적되지 않게 겁내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으라 그랬죠. 진짜로 믿고

그건 왜냐하면 한군데로 하나로 뭉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서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의 것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용도가 생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법입니다. 이것은 제각기 놓고 제각기 배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기만 하면 앞서서 입력된 건 모두 다 없애고 새로이 입력되는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는 그 원력이 바로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해결을 하되 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진을 하다가 후퇴를 할 때 도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둘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말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면 내면에서 자기의 가르치는 뜻이, 길잡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걸림이 없죠. 모두가, 이 진리는 하나니가 수십만 명이 깨우친다 하더라도 한 분입니다. 일불(一佛)입니다. 일불이 전체 허공에 꼭 찰레도 차고 쯤살 알갱이만 하기도 될 수 있고 아주 모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없는 것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너무나 광대해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계신다 해도 우리를 몸과 풀이 아니요, 우리들 마음과 풀이 아니요, 우리들 생명과 풀이 아니요, 우리들과 항상 풀 아나게 굴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지장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관세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부처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자유스럽게 쓰라. 지장으로 될 때는 지장으로 되고 아버지로 될 때는 아버지로 되고 또는 부인으로 될 때는 부인으로 되고, 남편으로 될 때는 남편으로 되듯이 보살이 지장이 관세음이다 이러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쓴다면 자동적으로 된다" 하고 말씀하셨죠. 정말이지 그 부서의 용도에 맞춰서 하면 그냥 관세음이고 지장이 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런 거를 멀리만 생각하고 여럿오만 생각하니까 도무지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 건 우리가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로서 경전을 내놓은 것도 우리가 살면서 그 도리를 알아서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교가 풀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몸통이와 내 불성이 풀이 아니고 배와 선장이 풀이 아니듯이 운전수와 차가 풀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따로 보살을 찾고 부처를 찾고 그러지 마시고 부처는 자기 내면의 한군데에 있으니 자기 속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가슴 속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서 샘물을 퍼가지고 천차만별로 쓸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큰스님 오래 머물러 계셨으면...

큰스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글 없는 길을 걷는 중에 감사 회향과 한 가지 청법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전 저는 인생의 회의를 맞아 비교적 평안했던 삶이 싹 슬러가고 집도 직장도 잃고 14가지의 병과 어린 두 딸을 데리고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부처님 형상에만 공양할 줄 안다면...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처 형상만 공양할 줄 알았지 자기부터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불자로서 부처님 잘 모시겠다고 하며 역으로 부처님을 욕되게 한다면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공 한쪽을 부처님 전에 놓을 수 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인공에 모든 걸 종합해서 공한 도리로 함이 없이 놓았다면 우주 전체의 일체 유생 무생이 다 먹고도 그 공 한쪽은 다시 남아서 또 먹을 수 있다. 부처님 전에 돈을 놓지 못했다. 공양을 넉넉히 올리지 못했다 해서 개운치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은 남보다 많이 놓았다 해서 든든하다 할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 놓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할 한 개를 뜻이도 그 향기가 우주를 다 쌀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게 정화수 떠 놓고, 내게 돈 놓고, 내게 공양 올리라고 가르친게 아니다.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빌어야 나 잘되고 가족 잘되는 줄 안다면 그것은 정말 부처님 법을 모르고 죄업을 잔뜩 짊어지는 게 된다.

많은 불자들이 '관세음 보살'을 염송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가슴에는 불을 켜지 않고 바깥으로만 불을 켜려 하니 밝아지지 않는다. 본래로 밝은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기를 제도하고 주변을 윤색케 할 것인가.

경배는 주인공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독경을 해도 그 독경 소리가 삼라 대천 세계에 모두 퍼지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경을 올조려면 불보살께서 들으시고 온 누리에 두루 퍼지게 된다.

풀이 아니기 때문에 풀이 아닌 마음으로 경을 읽고 주를 송할 때 진정한 공덕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그저 주는 주고 송은 송일 뿐이다. 그 깊은 이치를 모른 채 입으로 지 않는 세계의 범법에는 그 정성이 걸리지 않고 그저 자기나 들을 뿐이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나 천수경을 외울 때면 우리는 찰나찰나 여여하게 돌아가는 유휘법과 무위법을 외우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법을 따라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음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잊지 않고 꼭 해야만 염불인 줄 아는데 세울 게 없는 사람에게는 한생각이 곧 염불이 될 수 있다. 한생각이 그대로 활용이요, 그대로 범륜

이니 어찌 그 법을 어기고 입으로 외워야만 맞는다 하겠는가.

지극한 정성으로 불을 켜면 그 불은 우주와 더불어, 내 마음과 더불어 하나로 합쳐서 항상 켜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로 인등을 켜야 한다 하고, 석 달 열흘 그렇게 밝혀야 한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인등이 아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의 불을 켜면 항상 인등을 켜 놓은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인등이다. 마음이 밝아야 항상 밝은 것이니 인등을 켜 놓았다고 밝아진 것은 아니다.

인등을 백일 간 켜다, 천일 간 켜다 하는데 이 지구가, 아니 우주가 백일만 돌아가나, 천 일만 돌아가나? 또 우리는 백 일만 밝게 살 것인가, 천 일만 밝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일 초도 머무름이 없이 항상 불을 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등을 켜다, 안 켜다 하면서 굵어 부스럼을 만들지 마라.

식구 숫자대로 인등을 켜 놓고 잘 되기를 빠타고 하는데 그것을 어찌 불 켜 놓은 것이라 하겠는가. 불은 이미 지나가거나 마음의 불로 켜져 있는데도 불구 하고 켜다가 꺼지는 그 불로 정성을 들인다고 하니 그 불 꺼지고 나면 그 후로는 그만 빛고 그만 살겠다는 것인가.

법당에 촛불을 천 개 밝히는 것이 마음에 촛불을 한 번 밝히는 것만 못할 수가 있다. 마음의 불을 켜면 우주 전체가 알지만 촛불을 촛불로만 켜면 그 켜는 곳에서밖에 모른다.

잘되고 잘못되고, 좋고 나쁘고가 전부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주인공에게 '잘되게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다. 일체가 그 자리라 일심이 만법으로 나고 만법이 일심으로 드니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둘로 보아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다.

마음 한 번 내면 일체 제불이 다 아는 것이라 따로 법당이 없고 기도처가 없으니 생활 가운데서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진실하게 관한다면 생활이 그대로 기도요 수행인 것이다.

내 안에 관세음 보살이 있다. 예수가 있다. 하나님도 있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아서 주장자 하나 탁 던질 때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협찬: 주인공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